

반려의 의미로서 설화 속 ‘개’의 상징

임선영*

〈차례〉

1. 서론
2. 설화의 화소와 상징
3. 개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 분석
4. 설화를 통해 본 인간과 개의 유대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견이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이자 정서적 동반자로 의미화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인간-동물 유대 이론이 생물·심리학적 설명에 치우쳐 인간이 왜 개를 가족과 같은 반려의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해명에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설화는 집단무의식이 축적된 원형적 서사로, 현대적 반려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분석 대상은 <호랑이와 싸우는 개> 유형 설화 3편과 <개가 된 어머니>, <배신한 아내보다 나은 개>, <아이에게 젓 먹이는 개> 등 총 7편의 설화이다. 분석 결과, 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자, 억압된 존재를 해방시키는 매개자, 인간보다 높은 윤리성을 지닌 돌봄의 존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징은 각각 인간의 불안과 공포의 극복, 본능과 자유의 회복, 신의와 의리의 확인, 생명의 유지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대응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가 인간의 정서적 동반자로 확산하는 현상의 심층에는 설화 속 개의 위안과 치유의 상징이 반려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반려’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대하는

* 건국대학교 박사과정생

태도를 성찰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간-동물 유대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설화, 상징, 개, 반려견, 반려의 의미, 인간-개 유대

1. 서론

오늘날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접받고, 인간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정서적 교류의 주체로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약 29.2%(591만 가구)로 역대 최대치이며, 세 가구 중 한집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려견 수는 약 499만~586만 마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반려묘가 277만 마리에 이른다.¹⁾ 개와 고양이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이들 동물이 인간과 높은 친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증가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주요한 이유로 손꼽는다.²⁾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현대인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이른바 '강아지 팬데믹'이라고 불렀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7년까지의 반려동물 증가율이 8.8%였던 데 비해 2020~2022년까지는 평균 14.6%가 증가했다.³⁾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황

1)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5~2029, <https://www.mafra.go.kr/> 접속 일자: 2025.11.30.

2) 박소명, 전순영, 「에도 중심 집단 미술치료가 반려동물 상설 경험 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 한국미술치료학회, 2020, 972쪽.

3) 황원경, 김남경, 강윤정,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와 비만 관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5쪽.

에서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정서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들 간 사회적 지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를 증진하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최근에는 펫팸족(Pet-Fam)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반영한다. 과거에는 양육하는 동물을 ‘좋아하는 의미’로 애완동물로 불렀다면, 지금은 ‘여생을 함께 보내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지칭한다.⁵⁾ 반려동물 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비반려인조차 66.4%가 개를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⁶⁾

인간이 개를 가족과 동일하게 관계를 맺는 현상에 대해 동생물학계에서는 인간-동물 유대(human animal bond: HAB)⁷⁾이론으로 설명한다. 인간-동물 유대는 인간과 동물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유익을 교환하는 역동적 관계를 의미한다.⁸⁾ 인간-동물 유대 개념은 1979년 콘라드 로

4) 이한나, 강원국, 「반려인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2025. 217쪽.

5) 국립국어원(2026)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며, 애완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로 차이가 있다. 접속 일자: 2025.11.30.

6) 황원경, 김남경, 강운정(2025), 앞의 논문, 16쪽.

7) 미국 수의사협회는 인간-개 유대(HAB)는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인간과 동물이 정서적·심리적 물리적으로 유익한 상호 작용을 역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두, 김성호, 「인간-동물 유대에 근거한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9, 한국비영리학회, 2020, 42쪽.)

8) 천시내, 전중환, 「해의 동물매개중재 연구에 대한 고찰(총설)」, 『동물자원연구』 33,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 2022, 76쪽.

렌쯔(Konrad Lorenz)와 보리스 레빈슨(Boris Levinson)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인간의 본능’, ‘사회적 지지’, ‘애착’이라는 가설을 통해 반려견과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이론적 바탕이라고 보기 어렵다.⁹⁾ 이에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인이 왜 개에 큰 애착을 느끼고 반려가족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근원적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개의 유대의 근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설화를 통해 반려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개의 유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인간의 경험이며, 설화는 개와 유대 관계에서 형성된 경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에 관한 설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를 반려로 삼는 인간 경험의 의미를 밝혀줄 단서가 될 것이다.

개는 오랜 세월 가축으로 길러졌다. 약 2만 년에서 4만 년 전부터 인간과 공존해 온 가장 오래된 가축으로 주로 사냥, 경비, 식용 등 실용적 용도로 길들여졌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현대인들처럼 가축을 반려의 대상으로 삼은 흔적이 남아있다. 다수의 구비전승 설화와 문헌 기록이

9) 인간-개 유대(HAB)를 설명하는 가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윌슨(Wilson)이라는 생물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인간이 자연과 접점을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동물과 관계를 맺었고, 동물을 통해 안정성과 정보를 얻는 쪽으로 진화했다. 둘째, 사회적지지 이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부정적 심리가 완화된다는 것인데, 반려인들은 가족과 친구보다 반려동물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셋째, 애착 이론은 마치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처럼 인간은 동물을 돌보는 역할을 하며, 애착이 강한 유대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목서윤은 논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이나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인간-개 유대(HAB) 분야의 발전이 명확한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로 인간과 동물의 교감 시 옥시토신(행복 호르몬)의 분비 등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서윤,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관한 연구 현황과 개선 방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석사논문, 2021, 19~20쪽.)

이를 잘 보여준다.¹⁰⁾ 특히 구비전승 설화 중 의구(義狗)설화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시대 최자(崔滋)의 『보한집』에는 의견(義犬) 이야기가 최초로 실려 있다.¹¹⁾ 의로운 개는 주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호랑이를 물리치거나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하는 등 위기에 처한 인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동물행동학계에서는 동물에게 ‘이타성’과 같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義犬)설화에서 개는 주인을 위해 헌신적 이타성을 보이고, 은혜를 갚는 보은의 동물로 묘사된다.¹³⁾ 이는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 인간과 개의 지속적 상호작용 경험이 문학적으로 의미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야담집인 『동야회집』¹⁴⁾과 『청구야담』¹⁵⁾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위계적으로만 관계맺지 않고, 상호 호혜적 존재로 병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야회집〈의구구인차복수(義狗救人且復讎)〉에서는 개가 아내의 불륜을 징치하고, 주인인 곽태허를 불(火)과 호랑이의 위험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청구야담〈폐관정의구복주(吠官庭義狗報主)〉에는 과부인 주인이 살해를 당하자, 개가 이를 동헌에 알리고 살인범을 지목한다. 한의승은 이 같은 개의 의로운 행동이 인간의 돌봄에 대한 보은이자

10) 한의승, 「朝鮮朝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그 성격」, 『한국언어문학』 110, 한국언어문학회, 2019, 78쪽.

11) 권오성, 「〈의구전(義狗傳)〉고(攷)」, 『영남어문학』 10, 한민족어문학회, 1983, 2쪽.

12) 정규식, 「동물담 해석의 방법론적 시론 -‘개’설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6, 동남어문학회, 2008, 8쪽.

13) 정규식(2008), 위의 논문, 7쪽.

14) 『동야회집』은 조선 후기인 1869년에 문신 이원명에 의해 편찬된 야담집이다. 16권 8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60편의 이야기가 실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청구야담』은 조선 후기의 한문으로 쓰인 야담집으로 자세한 세태 묘사가 특징적이다. 현재까지 이본은 15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계서야담』, 『동야회집』 등 야담집과 함께 비교 언급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간과 교감이 전제된 상호시혜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이미 반려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나 설화나 야담에서 개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존재로 늘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쳐 죽임을 당하는 부정적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속담에는 ‘개 꼬리는 삼 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등의 개에 대한 비천한 인식이 나타난다. 개새끼, 개고기, 개똥, 개쫓, 개구멍 등의 어휘처럼 인간의 그릇된 성질을 개에 빗대어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개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관념이 동시에 공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에 관한 고전 연구는 1983년, 권오성의 「<의구전(義狗傳)> 고(攷)」와 최래옥의 「인간을 말하는 의견(義犬)설화-그 분류와 해석」에서 시작되었다. 최래옥은 우리나라 설화를 중심으로 의구설화를 1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면서 개 설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이끌었다. 이군선의 「개에 대한 인식(認識)과 문학적 형상(文學的 刑象)」¹⁷⁾에서는 문인이 남긴 기록 문학을 중심으로 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 관련 속담 연구나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개 설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이 주를 이루었고 폭넓은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를 보는 관점도 충성, 의로움, 보은에 한정되어 있었다.¹⁸⁾ 이러한 기존의 관점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더 현대적 관점에서 개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6) 한의승(2019), 앞의 논문, 100쪽.

17) 이군선, 「개에 대한 인식(認識)과 문학적 형상(文學的 刑象)」, 『동방한문학』, 63, 동방한문학회, 2015, 59쪽.

18) 의구(義狗)설화나 ‘충구전(忠狗傳)’, ‘의구전(義狗傳)」에서는 기록 주체에 의해 이야기가 재구성되거나 교조적 성향이 강하여 개에 대한 특정한 면만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 (한의승(2019), 앞의 논문, 79쪽 각주.)

동물 상징 연구는 주로 호랑이와 같은 신화적 존재에 집중되어 왔다. 호랑이는 신화적인 상징이면서 또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호랑이와 심리적 거리가 멀다. 과거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서식하였지만 이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과거에는 호랑이가 수호신을 상징했지만, 현대인들에게 호랑이는 더 이상 신령스러운 산신령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동물로 격하되고 만다.¹⁹⁾ 숭배받던 마을의 성황당 나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상징의 의미도 쇠퇴하는 것이다. 반면에 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가까운 반려동물로서 살아가고 있다. 개는 인간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오래된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는 시대를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미가 생산되는 '살아 있는 상징'으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

본고는 한국의 설화 속에 나타난 개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전통적으로 반려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 반려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급증하는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적·심리적 효과에 대한 문학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설화의 가치와 더불어 개의 다양한 상징이 현대까지 살아있음을 밝히고, 반려의 현재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2. 설화의 화소와 상징

나라와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설화가 발견되는 이유는 용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용

19) 김성민, 「C. G. 용의 상징론-무의식과 종교상징」, 『기독교논총』 8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3, 241쪽.

에 따르면, 문화와 민족이 다르더라도 인간은 공통된 정신적 기반을 지니며, 이러한 보편적 정신은 집단무의식을 통해 전승된다. 그는 소위 이런 생득적인 소인을 ‘원형’이라고 불렀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설화가 발견되는 것은 설화가 인간의 원형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융은 원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상징은 무의식에서 감지되는 것을 의식화하고, 인간의 인식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²⁰⁾ 즉 논리적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의미가 상징이라는 것이다.

설화는 상상적 사고의 산물이다.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한다. 설화는 다양한 층위의 상징을 통해 인간 정신 내 더 깊은 층과 접촉하게 된다. 설화가 다의적 특성을 지니는 것은 상징을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이야기가 펼쳐내는 문학적 상상이란 허구적 과장과 엉뚱한 비약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사의 깊은 진실이 깃들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의 근원과 닿아 있는 깊고도 내밀한 진실이다. 이에 대해 신동훈은 “원형적 스토리 속에는 비의가 가득 차 있으며, 상상적 구현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두는 현실의 감옥이 깨어지며 삶의 확장과 영혼의 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¹⁾ 이는 앞서 융이 말한 상징의 필요성에 대한 맥락과 의미를 같이 한다. 즉, 원형을 통해 만들어진 상상은 겉보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심리적 에너지로 우리에게 정동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설화의 상상적 사고는 삶의 문제 해결이며, 더 이상의 정신의 파괴를 막는 치유적 의미가 있다.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위기가 수반된다. 그런데 이 갈등 상황은

20) 신동훈, 「인지기체로서의 스토리와 인간연구로서의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6, 235쪽.

21)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54쪽.

개인의 현실적인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용에 따르면 상징은 정신에너지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본능적 대상의 유사형을 제공하여 정신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신적 발달을 돕는다고 한다. 상징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극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용은 인간 정신에서 대립하는 요소에 의해 긴장이 생겨나면, 그 자체로는 긴장을 해소할 방법이 없고 양극을 포용하는 제3의 요소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상징이 대극을 통합하는 제3의 요소 구실을 수행한다.²²⁾ 따라서 설화 속 상징은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에너지의 변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설화의 서사적 주체들이 겪는 갈등에 상징이 개입하면서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화 속 ‘개’의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설화 속 동물이 원형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개’의 상징이 인간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상징을 표상하는지 알아본다.

둘째, 설화의 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특별한 화소²³⁾가 서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대극의 통합을 이루어 내 현실적 갈등을 해소하는지 살펴본다. 설화의 특별한 화소는 합리적 사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상상적 사고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징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설화 속 다양한 ‘개’의 상징이 반려의 의미로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 알아본다.

22) 송홍익, 피종삼, 『옛이야기 그림책에 나타난 호랑이 상징과 개성화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0,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282쪽.

23) 신동훈은 “설화는 화소들의 놀이터다. 그 화소들이 적재적소에서 재미와 긴장감을 일으키고 의미를 자아낸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한 핵심 화소가 설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신동훈(2018), 앞의 책, 122쪽, 129쪽.)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의 의미로서 인간과 개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유대를 상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반려견 양육자에게도 폭넓은 심상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3. 개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 분석

1) 호랑이와 싸우는 개 : 작지만 강한 수호자

과거 우리 조상들은 각종 자연재해, 전쟁, 맹수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한반도에 널리 서식하였던 호랑이는 길을 떠날 때에나 집에 있을 때에도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호랑이는 흰 이마에 임금 왕자(王字)가 새겨져 있고, 하루에 80~100km를 다니는 기동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충(大蟲), 병호(炳虎), 산군(山君), 산군자(山君子), 산신(山神),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배의 양가(兩價)적 감정으로 인식되었다.²⁴⁾ 호랑이는 인간에게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며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그러나 설화 속 호랑이는 때로 인간에게 당하기도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상상을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설화 중에 <호랑이와 싸우는 개> 관련 설화를 투호구주형(鬪虎救主型) 설화라 부른다.²⁵⁾ 설화 속에서는 체급부터 달라 보이는 호랑이와 개가 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와 호랑이의 싸움>, <호랑이를 잡은 개>, <호랑이와 개의 대결담>, <개소리에 놀란 멍청한 호랑이>,

24) 강석근, 「한국 호랑이의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 『국제언어문학』 42, 국제언어문학회, 2019, 272쪽.

25) 최래욱, 「인간을 말하는 義犬설화-그 분류와 해석」, 『정신문화』 16, 한국학중앙연구원, 1983. 135쪽.

<호랑이와 싸워 주인 지킨 개> 등이 있다. 호랑이를 물리친 다른 동물로는 <호랑이를 물리치고 주인 지킨 소>에서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지만, 단연 코 개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호랑이를 물리친 개’ 관련 설화 세 편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부님이 논 가운데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에 큰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무척 사나웠다. 어느 날 새벽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개하고 싸움이 났다. 호랑이가 (여느 호랑이보다) 작은 놈이어서 개가 싸운 것이다. 결국 호랑이는 개를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을 갔고, 개는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조부님께로 왔다. - <개와 호랑이의 싸움>²⁶⁾

②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려고 진돗개를 샀다. 사냥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주인이 밤에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개가 있어 재워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다. 십리 밖 다른 집에도 찾았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 개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내려왔다.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날이 새고 보니 개가 호랑이를 잡아놓고 사라졌다. 알고 보니 개가 전 주인을 찾아 갔다.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개를 찾으러 갔는데 전 주인이 호랑이를 잡을 때 개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개가 당신을 물거라고 하면서 돈을 도로 내주었다. - <호랑이를 잡은 개>²⁷⁾

③ 사냥하는 사람이 개 두 마리를 몰고 산에 갔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개가 호랑이를 보고 내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호랑이가 이쪽으로 가면 개가 쫓고, 저쪽으로 가면 개가 쫓아서 밤새도록 개 두 마리가 호랑이를 놀렸다. 결국 호랑이는 밤새도록 시달려서 골짜기에 쓰러져버렸다. 그런데 호랑이가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이는 다 빠졌다. 개는 호랑이를 아이처럼 업고 산비탈

26)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kdp.aks.ac.kr/gubi>),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허상욱(남, 50세) 2009, 접속 일자: 2025. 11. 30.

27) 위 사이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이인현(남 77세), 1982, 접속 일자: 2025. 11. 30.

을 올라갔다. 호랑이를 집에 놓고 개 먹이듯이 했는데, 호랑이가 말을 잘해서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춤추라면 춤추었다. - <호랑이와 개의 대결담>²⁸⁾

이야기 순서대로 개를 살펴보면 ① 사나운 개 ② 사냥개 ③ 내빼지 않는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개는 용감하고 호랑이와 맞서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약한 존재였다가 강한 존재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강한 존재로 제시된다. 특히, ③번 설화에서는 개는 호랑이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를 끌리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김기호는 호랑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공동체 사회 내에 일정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사회의 기준에 동화하는 데 실패한 인물이라고 해석하였다.²⁹⁾

일반적으로 개는 호랑이에 비해 나약한 존재이기에 위협을 받으면 얼른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개의 성격을 사납고 용맹스럽게 설정하고, 맹수인 호랑이와 싸우거나 이기는 것이 흥미롭다. 호랑이가 개를 위협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사건을 겪은 인간은 호랑이의 위협을 체감하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의식을 갖게 된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인간도 개처럼 피해를 당하거나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설화에는 <호랑이에 껌데기가 벗겨진 개>, <호랑이가 개를 물고 간 이야기>처럼 호랑이와 싸워 개가 지거나 주인을 위해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 주인이 개를 대접한 설화도 전해진다. 이들 설화에서 개는 호랑이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이자 나약함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호랑이를 잡은 개>와 같은 설화는 특별한 화소로 낮춤과

28)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kdp.aks.ac.kr/gubi>),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최성수(남, 64세), 1981, 접속 일자: 2025. 11. 30.

29)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87쪽.

긴장을 일으킨다. 현실에서 도저히 호랑이와 싸워 이길 수 없기에 인간의 정신은 상상적 사고를 통해 해결 방안을 활성화시키면서 위협과 공포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상상적 사고로 탄생한 것이 ‘호랑이와 싸워 이기는 개’이다. 실제로 호랑이와 개가 싸운다면 개가 호랑이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위 세 편의 설화에서는 모두 개가 호랑이를 이기거나 완전히 제압한다.

실제 현실에서 개는 자기의 영역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낯선 이를 만나면 경계한다. 이는 주인에게 경보의 신호가 되고, 주인을 지키는 이미지로 축적되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다. ‘호랑이와 싸워 이기는 개’가 담지하는 상징적 의미는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존재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2) 세상 구경하는 개 : 본능의 해방과 자유

개는 늑대가 가축으로 길들여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길들여진 후 집 지킴이, 사냥개 등으로 이용되었다. 가축으로서의 개는 집이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 없으며 평생 집에 갇혀 살면서 집을 돌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개의 본능은 약화되고, 자신의 터전과 주인을 향한 강한 애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축으로서 당연한 개의 모습을 거스르는 설화가 있다. <개가 된 어머니>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구경하는 개가 등장한다. 이는 집에만 갇혀 살던 존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설화는 문학치료서사사전에 총 12편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총 16편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³⁰⁾ 이 설화는 전국에 분포되어 전승되는 광포설화로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 정운채 외 15명, 『문학치료 서사사전 1, 2, 3』, 문학과치료, 2009. 96쪽.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kdp.aks.ac.kr/gubi>) 접속 일자: 2025. 11. 30.

어머니가 평생 집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고생만하다 죽었다. 저승에서 어머니가 세상 구경을 못하고 죽은 것을 알고, 개로 환생시켜 집으로 돌아가 도둑이나 지키며 살라고 보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가 큰아들의 집으로 갔다. 마침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개를 잡아먹고 싶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일러주었다. 다음 날 딸이 그 사실을 오빠에게 이야기하자, 개를 잡아먹으려던 큰아들이 개를 업고 여행을 시켜 주었다. 하루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큰아들은 옷을 얼른 벗어 개에게 덮어 주었다. 잠시 뒤 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자리에 함 같은 것이 떨어졌다. 아들이 함을 들여다 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어 부자가 되었다. -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³¹⁾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 구경을 할 수도 없고, 고생만 하는 어머니를 고귀한 희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을 위해 애쓴 어머니가 세상 구경을 못하고 죽은 것이 어머니의 죄는 아닐 텐데, 그 죄로 개로 환생하도록 하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연구자는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저승의 판단을 과거 개에 대한 사회·문화적 판단으로 보았다. 앞서 개 관련 속담에서 우리 조상들이 개를 비천하게 보기도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저승에서는 평생 집밖에 나가보지 못한 어머니의 삶을 무지와 편협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천한 삶으로 본 것이다. 이는 세상 구경 한 번 하지 못한 어머니의 비루한 삶이 목줄에 묶인 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한서희는 어머니의 세상 여행을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자각과 사회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았다.³²⁾ 이는 어머니의 그동안의 삶이 타율적이며 억압된 삶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성장하고자 하는 힘에의 의지를 모든 생

31) 정운채 외 15명(2009), 위의 책, 96쪽.

32) 한서희, 「<개가 된 어머니> 설화에 투영된 이중적 가치와 의미」, 『남도민속연구』 47, 남도민속학회, 2024, 337쪽.

명체의 건강한 본능으로 규정한다.” 집안에 묶인 개는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할 수 없는 힘의 부재를 의미한다.³³⁾ 따라서 ‘집에 갇힌 개(어머니)’는 자기 극복을 위한 투쟁적 본능이 약화된 존재이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다.

이 설화에서의 특별한 화소는 ‘개가 된 어머니’와 ‘세상 구경하는 개’이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는 집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때 아들은 어머니가 개로 환생한 것을 알고, 엮고 세상 구경을 떠난다. ‘세상 구경을 하는 개’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적 사고의 발현이다. 어머니는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람으로 환생할 수 없으며 비천한 삶을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개(어머니)는 아들의 도움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탐험과 성장을 통해 승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여정은 신화에서 ‘영웅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원질신화를 분석하여 영웅의 여정을 분리(출발)-입문(시련과 입문의 성공)-회귀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³⁴⁾ 영웅은 자기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신화의 여정을 겪는다. 주인공의 길 떠남, 공간 이동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다.³⁵⁾ 이와 같은 여정은 비단 영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견과 극복’의 인류 보편의 정신 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³⁶⁾

33) 이상범, 「니체의 “커다란 건강”에 대한 연구」, 『니체연구』 29, 한국니체학회, 2016, 229쪽, 256쪽.

34) 원질신화는 세계 곳곳의 방대한 신화를 검토해 공통의 서사적 구조를 지닌 신화를 말한다. 캠벨에 따르면 원질신화는 신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정신적 작용을 담아낸 텍스트를 포함한다. 인류의 정신 작용에 의한 결과물은 ‘원형’에 의한 것으로 보편적인 원질신화의 프레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조홍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36~37쪽.)

35) 신동훈,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쌤터, 2015, 23~24쪽.

‘집에 갇힌 개(어머니)’에서 ‘세상 구경하는 개(어머니)’로 바뀌는 것은 용의 상징 이론에서 말한 대극의 통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쩌면 집에 갇힌 개보다 못한 존재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집안의 안주인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역할에 억압되어 있다. 어머니의 죽음은 새로운 자아의 탄생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환생을 통해 개는 낡은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로 변화된다. 세상을 구경하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과 존재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물원 같은 인위적 공간에 갇힌 동물이 야생성을 잃어가듯이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동물의 본능과 야생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집안에 갇힌 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의 억압을 실감케 하는 동시에 본능의 회복을 지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세상을 구경하는 개’가 된 어머니 화소는 본능을 잃은 존재가 다시 세계와 접촉하며 성장해 나가는 자아의 회복과 자유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3) 배신한 아내보다 나은 개 : 신의와 의리

개는 여러 문헌에서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지(知), 덕(德), 체(體)를 갖춘 존재로 묘사된다. 인간계에서의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봉우유신, 장유유서를 각각 주인과 개의 관계, 어미와 새끼의 관계, 수캐와 암캐의 관계, 큰 개와 작은 개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한다.³⁷⁾ 이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를 동물에 빗대어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며, 집단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의견(義犬)설화를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을 고찰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그동

36) 조홍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66쪽.

37) 정규식, 「동물담 해석의 방법론적 시론-‘개’설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6, 동남어문학회, 6쪽.

안 잘 거론되지 않았던 설화 한 편을 통해 개의 신의와 의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배신한 아내보다 나은 개> 종류의 설화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에서 <도적 만나 배신한 아내와 의리 지킨 개>로 소개되고 있으며, <여자가 개보다 못하다>, <남편을 배신한 색시>, <만장일치로 이혼한 초립동이> 등 총 4편을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각시와 함께 술과 떡을 해서 처갓집에 가는데, 함께 살던 개가 따라왔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도둑이 내려와서 각시를 뺏으려고 했다. 도둑은 씨름을 해서 열 번을 뒤집으면 각시를 데려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각시를 데리고 간다고 했다. 남자가 도둑을 아홉 번을 넘기고 마지막 한 번을 넘기지 못했다. 그때 도둑이 각시보고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각시가 칼을 도둑에게 주려고 하자 개가 다른 칼을 물어다가 주인에게 줬다. 그래서 남자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다. 남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처갓집에 가자 장인, 장모는 사위가 아픈 줄 알고 닭을 잡아 줬다. 남자는 음식에 숟가락도 대보지도 않고 자신을 살려준 개에게 갔다 줬다. 처갓집에서 왜 개에게 주냐고 묻자 남자는 이 개에게 조선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쥐도 아깝지 않다면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고, 부인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물었다. - <도적 만나 배신한 아내와 의리지킨 개>³⁸⁾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개가 주인을 따라왔다. 개는 습성적으로 주인을 따라다니는 근접 추구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주인 관련 유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과의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³⁹⁾ 이렇게 따라나선 개는 주인이 도둑과 싸우다가 죽음의 위기에

38) 정운채 외 15명(2009), 앞의 책 775쪽.

39) Emanuela Prato-Previde, Deborah Mary Custance, Caterina Spiezio and Francesca Sabatini, "Is the dog-human relationship an attachment bond? An observational study using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Behaviour 140,

몰리고 아내마저 빼앗기게 생겼을 때 주인의 목숨을 구한다. 이 설화에서 특별한 화소는 ‘칼을 도둑에게 주는 아내’와 ‘칼을 주인에게 주는 개’이다. 도둑이 남편을 죽이고 각시를 뺏으려 하는데 오히려 아내가 도둑에게 칼을 준다.

부부지간에는 모름지기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이유가 밝혀진 않았으나 아내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다. 그런데 개는 남편을 돕고 배신하지 않는다. 개가 칼을 남편에게 몰어다 준 것은 상상적 사고인데 이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징치하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인간의 윤리적 인식이 개를 통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등에 의해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 의해 배신당하는 아픔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등에 칼이 꽂히는 배신은 자아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와 혼란, 심각한 경우 대인 기피나 트라우마로 이어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대인관계를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배신은 삶의 중대한 파열점으로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림자가 된다.

설화 속 남편과 아내는 부부관계의 불신과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개와 남편의 관계는 인간관계보다 더 견고해 보인다. 개는 동물이지만 아내와 비교되면서 인간보다 나은 개로 격상된다.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이야기는 개에 의해 반전을 맞이한다. 남편은 도둑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설화는 문학적 상상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개의 도움으로 아내의 배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승리를 가져다준다. 도덕적인 인간상을 회구하는 마음이 설화로 구연 전승된 것으로, 이 설화 속의 개는 윤리적으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⁰⁾

Koninklijke Brill NV, 2003, pp.225.

40) 최래옥(1983) 앞의 논문, 135쪽.

일부 반려인들이 개를 사랑하는 이유가 개는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과 달리 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준다. 관계를 저울질하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의 모습이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개의 문학적 상징으로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4) 아이 젓먹이는 개 : 돌봄의 상징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설화는 개가 아이에게 젓을 먹여 생명을 살리는 설화이다. 우리나라에는 개가 자신의 새끼를 굶기면서까지 주인의 아이에게 젓을 먹여 살리는 수유구아형(授乳救兒型)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⁴¹⁾ 문학치료 서사사전에는 <첩이 버린 본처 아기 살린 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으며 총 7편이 실려있다.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후처를 얻었는데 전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주인은 불일이 있어 나가고 없었다. 전처가 아들을 낳자, 후처는 숨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는 죽은 아이를 낳았다며 뒷산에 가져다 묻었다. 마침 그 집에 새끼를 낳은 개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구덩이를 파서 아이에게 젓을 물려서 키웠다. 주인이 돌아오자 개는 옷 가랑이를 물고 잡아 당겨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구하게 했다. 주인은 후처를 내쫓고 그 개가 늙어 죽도록 키우다 죽자 묻어 주었다. -<첩이 버린 본처 아기 살린 개>⁴²⁾

이야기에서, 본처를 시샘한 첩이 아이를 죽여 뒷산에 묻고 나서 거짓말을 한다. 새끼를 낳은 개는 모성을 자기 새끼에게만 보이지 않고 인간에게도 발휘한다. 개는 아기를 묻은 구덩이를 파내 젓을 먹여 키운다. 개가 아니

41) 최래옥(1983), 위의 논문, 135쪽.

42) 정운채 외 15명(2009), 앞의 책, 3133쪽.

있으면 핏덩이 같은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 설화에서 특별한 화소는 ‘아이에게 젓 먹이는 개’이다. 첩이 산채로 아이를 구덩이에 묻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개는 아이의 목숨을 살리는 엄마 역할을 한다. 구덩이에서 아이를 파낸 후 굶어 죽지 않도록 젓을 먹인다. 버려진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개 덕분에 살아난다. 이 설화 속 개는 모성의 결핍을 보완하고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돌봄은 주로 암컷이 수행한다. 평소 순한 개도 새끼를 낳으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으르렁대고, 24시간 젓을 물려 새끼를 키운다.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 때문이다. 어미 개는 새끼들에게 젓을 물리면서 비쩍비쩍 말라가지만 수유를 멈추지 않는다. 수유는 포유류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성 행동이다. 수유는 프로락틴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 모유 생산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모성 행동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⁴³⁾ 이 설화는 이런 개의 생태학적 특성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우연찮게 개는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낳은 동물은 모성이 극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속 개는 버려진 아이를 찾아 젓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이다.

캠벨이 원질신화에서 세계의 동물 수유 설화를 분석했듯이 아이가 동물의 젓을 먹고 생존하는 것은 전세계 설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소이다.⁴⁴⁾ 이는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문학적 상상을 통해 양육이라는 돌봄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돌봄은 사랑을 전제로 한

43) Karina Lezama-García, Chiara Mariti, Daniel Mota-Rojas, Julio Martínez-Burnes, Hugo Barrios-García, Angelo Gazzano, “Maternal behaviour in domestic dogs”,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AND MEDICINE 2019, VOL. 7, p. 24.

44) 로물루스와 레무스(로마 건국 신화): 늑대가 쌍둥이 형제에게 젓을 먹여 살린다. 파리스(그리스 신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파리스에게 곰이 젓을 먹여 키웠다고 전해진다. 인도 신화 및 기타 민담: 숲속에 버려진 아이가 암사슴이나 다른 동물의 젓을 먹고 자라나 훌륭한 지도자나 성자가 된다.

다. 선한 모성은 잔인한 모성에 대항하여 싸운다. 침은 질투와 욕망에 눈이 멀어 어린 생명을 죽이려 하는 부정적인 모성상을 표상한다. 반면 개는 긍정적인 모성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존재로 그려진다.⁴⁵⁾ 주인은 개가 죽은 뒤에도 개 무덤을 만들어준다. 한낱 미물이지만 그 희생을 기려 보답한 것이다.

실제 반려인은 개의 임신과 출산, 수유 및 양육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사람만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개도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모성애가 인간 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의 양육자는 사람이지만, 개 역시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인간이 개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문학적 상상으로 이어진다. 이 수유구아형 설화는 개가 인간에게 선한 모성적 돌봄을 베풀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4. 설화를 통해 본 인간과 개의 유대

앞서 설화를 통해 반려의 의미로서의 설화에 담긴 개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설화 속 개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가축이나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감당하고, 억압된 존재에서 해방시키고, 배신하지 않고, 버려진 생명을 돌보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개의 형상은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정서적 욕구와 삶의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호랑이와 싸우는 개> 유형의 설화 속 호랑이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위협의 상징이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개는 현실의

45) 지밀레 비르크호이저-웨이, 이유경 옮김, 『민담의 모성상 - 모성 원형과 모성 콤플렉스의 융 심리학적 탐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245쪽.

한계를 넘어 호랑이를 제압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는 호랑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공포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성과 압박, 경제적 불안, 고립과 외로움 등은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반려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안전지지가 된다. 실제로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이 집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반려견의 존재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한다.⁴⁶⁾ 이는 설화 속 인간을 지켜주는 심리적 수호자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설화 속 개의 상징이 현대 사회 속 반려의 의미로 드러난 것이다.

현대 도시인은 점점 실내 중심으로 생활한다. 평생 집안에 갇혀 지내는 개와 유사한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갇혀 산다는 것은 외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회 관습에서 주어진 역할, 생존을 위한 장시간의 노동, 각종 사회적 규범 등 유무형의 억압이 포함된다. 이는 인간 본연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자아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한다. <개가 된 어머니>는 억압된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세상을 구경하는 개’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본능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마치 이야기 속 어머니가 반려인이라면 아들은 반려견과 같다. 반려견은 인간을 집밖 세계로 이끄는 존재이다.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과의 산책이나 활동을 통해 다른 삶의 감각을 경험한다. 노인들의 반려동물 매개활동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설화 속 개가 세상 여행을 통해 삶의 폐쇄성과 고립을 벗어나는 것과 연결된다.

46) 우수아, 김민희, 「반려동물 애착과 안녕감: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 『감성과학』 26(1), 한국감성과학회, 2023, 28쪽.

47) 홍상민, 「노인 건강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동물매개활동」,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4, 한국특수체육학회, 2016, 144쪽.

카프카는 개를 인간화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개에 내재한 야생성과 생명력을 암시하며 인간의 동물되기를 역설하였다.⁴⁸⁾ 현대인들은 어쩌면 문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반려견은 억압된 인간 삶의 고삐를 풀어 본능의 감각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설화 속 개의 상징적 의미가 반려로서 개의 본능의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지속적이기보다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한 관계로 냉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 타인에 대한 질투를 넘어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 간 신뢰의 상실과 배신으로 인한 심리적 내상은 관계의 피로감을 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 등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배신한 아내보다 나는 개>는 반려인들이 사람보다 개에게 왜 더 깊은 신뢰를 느끼는지를 보여준다. 설화 속 개는 인간보다 더 의리 있고 신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개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를 회복시켜 주는 인간의 윤리적 이상을 투사한 것이다. 현대인이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유대를 통해 동반자로서 애착을 형성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회복하고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개의 유대는 정서적 치유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연구에서 입증된 반려견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완화 효과와 더불어, 개는 시각 장애인 도움견, 지체 장애인 도움견, 청각 장애인 도움견 등 인간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돌봄 성향은 <아이 젓먹이는 개> 설화에 나타난 모성적 돌봄과 연결된다. 설화 속에서 개가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며 생명을 부양하는

48) 정형균, 「인간화된 개의 개-되기 - 카프카의 어느 개의 연구에 나타난 연구자 개와 그 타자의 관계 연구」, 『독일어문화권연구』 23,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3, 47쪽.

행위는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돌봄을 상징한다. 물론 훈련을 통해 습득된 도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상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의 구원자로 형상화되었던 개의 돌봄 상징은 현대 사회에서도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개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개 역시 인간을 돌보는 존재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돌봄이 결핍된 자리에 조건 없는 개의 헌신이야말로 개를 반려의 위치로 끌어올린 이유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반려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화를 통해 살핌으로써 반려의 심층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반려는 인간-개의 유대를 통한 동반 현상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불안과 공포의 극복, 본능과 자유의 회복, 신의와 의리의 확인, 생명의 유지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맞닿아 있었다. 즉, 개의 수호, 해방, 신의, 돌봄의 상징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반려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소개한 개 관련 설화는 인간과 대등한 존재를 넘어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 상징화하고 있다. 상징은 인간을 대상에 동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은유가 ‘닭음의 발견’이라면 상징은 ‘닭아가기의 체험’이다.⁴⁹⁾ 이런 점에서 설화 속 개의 상징은 인간으로 하여금 동질감을 체험하게 만든다. 설화 속 개의 상징을 닭아가며 인간은 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반려인에게 반려견을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며, 반려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49) 황혜진, 「상징 해석을 위한 문학치료 활동 연구」, 『문학치료연구』 73, 한국문학치료학회, 2024, 504쪽.

현대 사회에서 반려견 양육이 늘어나고, 정서적 동반자로 삼게 된 이유는 인간 사회에 집단적으로 내려온 무의식의 원형이 실제적 삶과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오랜 시간 개와 함께 살아오며 축적한 경험과 기억이 반려의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이 겪는 치열한 경쟁과 불안, 억압, 고립, 외로움을 반려견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반려는 현상이고, 그 속에 내재한 의미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위안과 치유이다.

본고는 일부 설화 작품만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설화 속 개가 지닌 다양한 상징을 발굴하고, 현대 반려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 동물매개교육(animal-assisted education: AAE) 등 동물매개중재(Animal-Assisted Intervention: A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동물의 신체적, 감정적, 접촉의 이점을 치료나 교육 등에 활용한다. 여기에 설화 속 개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더해진다면,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매개활동의 심층적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강석근, 「한국 호랑이의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 『국제언어문학』 42, 국제언어문학회, 2019, 267~293쪽.
- 권오성, 「〈의구전(義狗傳)〉 고(攷)」, 『영남어문학10』, 한민족어문학회, 1983, 77~108쪽.
-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77~106쪽.
- 김성민, 「C. G. 융의 상징론-무의식과 종교상징」, 『기독교논총』 8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3, 235~261쪽.
- 목서윤,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관한 연구 현황과 개선 방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2021, 1~180쪽.
- 박소명, 전순영, 「애도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반려동물 상실 경험 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5), 한국미술치료학회, 2020, 971~994쪽.
- 박종두, 김성호, 「인간-동물 유대에 근거한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9, 한국비영리학회, 2020, 37~59쪽.
- 신동훈,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샘터, 2015, 1~214쪽.
- 신동훈, 「인지기체로서의 스토리와 인간연구로서의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6, 59~104쪽.
-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1~315쪽.
- 우수아, 김민희, 「반려동물 애착과 안녕감: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 『감성과학』 26, 한국감성과학회, 2023, 17~32쪽.
- 이군선, 「개에 대한 認識과 文學的 刑象」, 『동방한문학』, 63, 동방한문학회, 2015, 59~84쪽.
- 이상범, 「니체의 “커다란 건강”에 대한 연구」, 『니체연구』 29, 한국니체학회, 2016, 229쪽, 229~284쪽.
- 이수자,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관광의식-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7, 역사민속학회, 2003, 55~85쪽.
- 이한나, 강원국, 「반려인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 2025, 207~222쪽.

- 정규식, 「동물담 해석의 방법론적 시론-‘개’설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6, 동남어문학회, 2008, 1~19쪽.
- 정운채 외 15명, 『문학치료 서사사전 1, 2, 3』, 문학과치료, 2009, 96쪽, 775쪽, 1~3774쪽.
- 정항균, 「인간화된 개의 개-되기 - 카프카의 어느 개의 연구에 나타난 연구자 개와 그 타자의 관계 연구」, 『독일어문화권연구』 23,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3, 7~51쪽.
- 지밀레 비르크호이저-애리, 이유경 옮김, 『민담의 모성상 - 모성 원형과 모성 콤플렉스의 융 심리학적 탐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1~351쪽.
- 조홍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31~74쪽.
- 천시내, 전중환, 「해외 동물매개중재 연구에 대한 고찰(총설)」, 『동물자원연구』 33,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 2022, 66~83쪽.
- 최래옥, 「인간을 말하는 義犬설화 그 분류와 해석」, 『정신문화』 16, 한국학중앙연구원, 1983, 131~141쪽.
- 한서희, 「〈개가 된 어머니〉 설화에 투영된 이중적 가치와 의미」, 『남도민속연구』 47, 남도민속학회, 2024, 335~361쪽.
- 한의승, 「朝鮮朝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그 성격」, 『한국언어문학』 110, 한국언어문학회, 2019, 76쪽, 77~108쪽.
- 홍상민, 「노인 건강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동물매개활동」,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4, 한국특수체육학회, 2016, 139~148쪽.
- 황원경, 김남경, 강윤정,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와 비만 관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1~100쪽.
- 황혜진, 「상징 해석을 위한 문학치료 활동 연구」, 『문학치료연구』 73, 한국문학치료학회, 2024, 499~529쪽.

2. 국외 논저

- Emanuela Prato-Previde, Deborah Mary Custance, Caterina Spiezio and Francesca Sabatini, "Is the dog-human relationship an attachment bond? An observational study using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Behaviour 140, Koninklijke Brill NV, 2003, pp.225~254.
- Karina Lezama-García, Chiara Mariti, Daniel Mota-Rojas, Julio Martínez-Burnes, Hugo Barrios-García, Angelo Gazzano, "Maternal behaviour

in domestic dogs”,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AND MEDICINE 2019, VOL. 7, pp.20~30.

3. 인터넷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5.11.30.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2025~2029, <https://www.mafra.go.kr/>, 2025.11.30.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kdp.aks.ac.kr/gubi>, 2025.11.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2025.11.30.

ABSTRACT

The Dog as a Symbol of Companionship in Folktales

Lim, Sun-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in modern society where companion dogs are signified not merely as animals as family members and emotional companions, aiming to examine thi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departs from the critical awareness that existing human-animal bond theories lean too heavily toward bio-psychological explanations, thereby possessing limitations in fundamentally clarifying why humans perceive dogs as family-like companion beings. Folktales, as archetypal narratives accumulating the collective unconscious, allow us to examine how the modern meaning of companionship was formed.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seven folktales in total: three variants of the “Dog Fighting a Tiger” type, “The Dog Seeing the World,” “The Dog Better Than a Betraying Wife,” and “The Dog Nursing a Child.”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dog appears as a protector guarding humans from external threats, a mediator liberating suppressed beings, an entity possessing higher ethics than humans, and a being of care. These symbols correspond respectively to fundamental human desires: overcoming anxiety and fear, restoring instinct and freedom, confirming loyalty and devotion, and sustaining lif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deep within the phenomenon of dogs expanding as emotional companions for humans in modern society, the dog’s symbols of comfort and healing found in folktale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core meaning of companionship. Thes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renew the meaning of “companionship” and, furthermore, encourage companion-dog owners to reflect on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pets. Through this,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xpanding the horizon

of humanist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human-animal bond.

Key Words Folktales, Symbol, Dog, Companion Dog, Meaning of Companionship,
Human-Dog Bond

논문투고일: 2026.04.23.

심사완료일: 2026.05.12.

게재확정일: 2026.05.17.